영어어문교육 *제31권* 1호 2025년 봄
https://doi.org/10.35828/etak.2025.31.1.103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성취기준 분석: 차별성과 중복성을 중심으로

천혁진
(전남대학교)

Cheon, Hyeok-Jin. (2025). An analysis of achievement standards in English elective courses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distinctiveness and overlap.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1*(1), 103-133.

This study analyzed the distinctivenes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among English elective course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ts aim was to examine whether the achievement standards can guarantee students′ right to choose subjects in alignment with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three categories of elective courses were analyzed: general (English I, English II,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areer (Englis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Advanced English,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Advanced English Reading and Writing), and convergence electives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Media English, World Culture and English). The findings revealed considerable overlap in achievement standards among general elective courses in both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domains. Career elective courses showed varying degrees of distinctiveness across subjects: While the two advanced courses demonstrated high overlap with general electives, Englis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and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contained more distinctive achievement standards. Among convergence electives, Media English and World Culture and English exhibited distinctly different achievement standards from other electives, though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showed considerable overlap in the comprehension domain. The study suggests introducing more distinctive achievement standards and developing systematic support for course implementation to ensure meaningful student course selection.

[achievement standards/English elective courses/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high school credit system, 성취기준/영어 선택 과목/2022 개정 교육과정/고교학점제]

Ⅰ. 서론

최근 국내외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서 학생 주도성과 선택권 보장을 핵심 의제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을 미래 교육의 근간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과정 내 학생 선택권 확대를 권고하였다(OECD, 2018). 국내 교육과정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제7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교육부, 2021)로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구축, 내신 등급 체계 개편(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한다.

새로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단계적 시행 전략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2018년 82개의 연구·준비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242개교, 2020년 524개교, 2021년 939개교, 2022년 1,413개교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전국 1,692개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의 실질적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로 상담 내실화, 선택 과목 사전 수요 조사, 수요 조사 결과에 기반한 수강신청 및 정정, 수업 운영 준비 등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였다(교육부 외, 2019;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일련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하여 일선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과별 최소 이수 단위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교과 영역에 걸친 완전 개방형 선택제를 시행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동욱, 2019). 정책적 노력과 학교 현장의 적극적 이행은 학습자들의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82개교의 고등학교 1, 2학년 7,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목 선택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1학년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학년 학생들에 비해 과목 선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는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교육 개혁의 방향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고교학점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의 체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원화된 선

택 과목 체계(일반 선택, 진로 선택)를 삼원화(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하여 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하였으며, 주요 5개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선택 과목 수를 기존 46개에서 65개로 증가시켰다. 특히 영어 교과의 경우, 기존 8개 과목(일반 선택 4개, 진로 선택 4개)에서 11개 과목(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5개, 융합 선택 3개)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경로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선택 과목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학습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신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과목 간 명확한 변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목 수 증가는 오히려 유사한 성격과 내용을 지닌 과목들의 중복 개설로 이어져 학습자의 의미 있는 선택을 제한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 과목 간 내용의 중복과 모호한 성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구성(안)에 관한 연구(주형미 외, 2021)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영어 교과의 경우 서로 다른 과목명으로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과목 간 차별성이 모호한 채 유사한 성격과 내용,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영어 과목 선택 폭을 축소시킴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선택 과목들의 실제적 차별성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 간의 성취기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과목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실질적 차별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차별성이 학습자의 의미 있는 과목 선택권 보장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성취기준의 변별성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실천적 조건과 고려 사항을 탐색함으로써, 영어과 선택 과목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은 과목 간 어떠한 차별성과 중복성을 보이는가?
2.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은 일반 선택 과목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과 중복성을 보이는가?
3.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융합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은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과 중복성을 보이는가?

Ⅱ. 교육과정 선택 과목과 성취기준

1. 선택과목제의 변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은 제7차 교육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시도교육청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학생이 특정 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교육부, 1997).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그 취지와 달리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제도의 근본 취지는 의미가 있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 개설과 선택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재춘, 박소영, 2004; 소경희, 200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더욱 강조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계열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으며 2020년에는 이를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실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흐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라는 구체적인 제도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에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을 고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발표되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교육사에서 유례없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적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이 제도는 단순한 교육과정의 개정을 넘어 학교 현장과 교육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행과 정착에 관한 여러 찬반의 논쟁과 논의를 촉발하였고(김성천, 2021; 전은정 외, 2023; 홍후조, 2018) 관련한 사례연구도 이어졌다(김연, 2020; 김홍겸, 오현정, 2019; 서봉언, 2020; 유동훈 외, 2020; 임종헌 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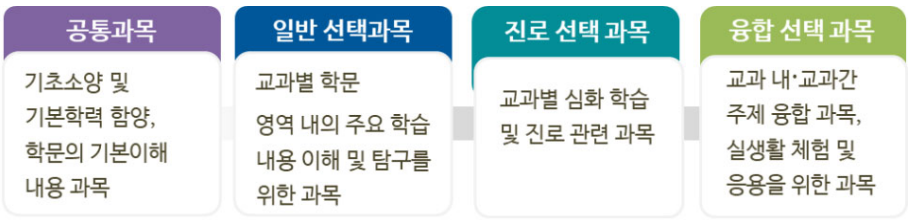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육체계의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교육정책으로서 기존의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경로와 진로 희망에 부합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교육부, 2021). 특히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양상 중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실질적 활성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제7차 교육과정 이래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급의 비탄력성, 교사들의 교과 담당 배치의 고착화, 그리고 학교의 물리적 · 행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

과목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일선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선택과목제 연수 실시, 다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 환경 구축, 수강 신청부터 상담 지도에 이르는 체계적 운영 절차 수립, 온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과목 및 다학년 지도에 대한 교사 연수를 통한 교수 역량 강화와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수 · 학습 지도 방안 및 평가 체계 수립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그러나 이러한 다차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잦은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다과목 담당에 따른 교과 전문성 약화 등의 현장 적용상의 도전 과제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선택 과목 체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 교과는 보통 교과로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교육부, 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교육부(2022d)에서 안내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질의 응답 자료에서는 고등학교 과목 구조를 제시하면서, 공통과목은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이해 내용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소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고등학교 과목 구조 (교육부, 2022d, p. 31)



영어과 공통 과목은 공통영어1, 공통영어2, 기본영어1, 기본영어2로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은 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3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직무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5과목, 융합 선택 과목은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설 과목이었던 실용 영어, 진로 영어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영어 회화는 실생활 영어 회화로, 영어권 문화는 세계 문화와 영어로 변경되었으며,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미디어 영어는 신설되었다. 또한 전문 교과I의 과목들이 통폐합되어 심화 영어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으로 재편되었다(이영아, 2022).

3. 성취기준의 의미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성취기준은 교수·학습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능력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평가기준'이라는 용어로 처음 도입된 이래 교육과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이병천, 2018).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교과역량이 핵심역량 달성을 위한 기초적 토대가 되며 각 교과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과역량이 신장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실행 과정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과역량과의 연계성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Lee, 2019, 2020),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의사소통 역량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다른 교과역량들과의 균형적인 통합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김미진, 2019).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성취기준의 구조화를 한층 강화하여, 교과별 학습 내용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성취기준은 각 영역의 학습 내용을 통합적으로 습득한 결과로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 즉 기대되는 수행 능력의 도달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단순한 학습 목표나 평가 기준을 넘어 교수·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습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현대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으로 전통적인 네 가지 언어 기능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 중심의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이라는 두 가지 통합적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디지털 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한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 양상을 반영한 결과로서 그 교육적 의의는 지극히 현실반영적이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개별 언어 기능이 분절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회의에서는 음성을 통한 발화와 문자 채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소셜 미디어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 복합적으

로 얽혀 의미를 전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이러한 실제적인 언어 사용 맥락을 반영하여 '이해'와 '표현'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범주 아래 언어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제적인 의사소통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그 개발 과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질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새로운 성취기준은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이를 영어과의 교과 역량 및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유의미한 변화의 실제적 양상은 이영아(2023)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군과 중학교 성취기준을 분석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성취기준들이 정의적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기관리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과 같은 정의적 요소들이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실제적인 영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략과 학습 전략이 성취기준에 명료하게 제시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최원경, 2022). 이는 성취기준이 단순한 도달점 진술을 넘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교육적 지침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단순한 학습 목표 진술을 넘어 교과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 준거로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은 해당 교과의 핵심역량과 목표, 그리고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의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최원경, 2023). 교사들은 이러한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성취수준을 설정하며, 이를 통해 수업과 평가 활동을 일관성 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교육부, 2022c). 이처럼 성취기준이 교과의 목표, 내용, 평가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표라는 점에서 성취기준에 대한 분석은 해당 과목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과목 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보다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선택 과목들의 성취기준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과목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차별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범위 및 방향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성취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공통 과목(공통영어1, 공통영어2, 기본영어1, 기본영어2)은 기초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학생이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일반계 고등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의 의미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생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역량 함양을 위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직무 영어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에 제시되었듯이, 분석 대상이 되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인 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3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인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4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인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3과목이다. 각 과목별 성취기준의 수를 살펴보면,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영어I 16개(이해 8, 표현 8), 영어II 17개(이해 8, 표현 9), 영어 독해와 작문 17개(독해 9, 작문8)이며, 진로 선택 과목은 영어 발표와 토론 16개(발표 8, 토론 8), 심화영어 16개(이해 8, 표현8), 영미 문학 읽기 8개,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17개(독해 9, 작문 8), 융합 선택 과목은 실생활 영어 회화 9개, 미디어 영어 10개, 세계 문화와 영어 10개로 총 136개의 성취기준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표 1
본 연구의 과목 및 성취기준 분석 범위

구분	과목	성취기준 수	영역 및 성취기준 수
일반 선택 과목	영어I	16	이해 8, 표현 8
	영어II	17	이해 8, 표현 9
	영어 독해와 작문	17	독해 9, 작문 8
진로 선택 과목	영어 발표와 토론	16	발표 8, 토론 8
	심화 영어	16	이해 8, 표현 8
	영미 문학 읽기	8	8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17	독해 9, 작문 8
융합 선택 과목	실생활 영어 회화	9	9
	미디어 영어	10	10
	세계 문화와 영어	10	10
합계	10	136	

Note. 공통 과목 4과목(공통영어1, 공통영어2, 기본영어1, 기본영어2) 과 진로 선택 과목 중 직무 영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본 연구는 성취기준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석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형식적 측면보다는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각 과목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필요한 경우 용어와 표현의 사용, 활동의 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다. 둘째, 각 과목의 성취기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 그룹별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각 선택 과목 그룹 내에서는 '이해' 영역 관련 성취기준을 먼저 분석한 후, '표현' 영역 관련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그룹 간의 차별성 및 중복성을 파악하고, 선택 과목으로서의 특성이 적절히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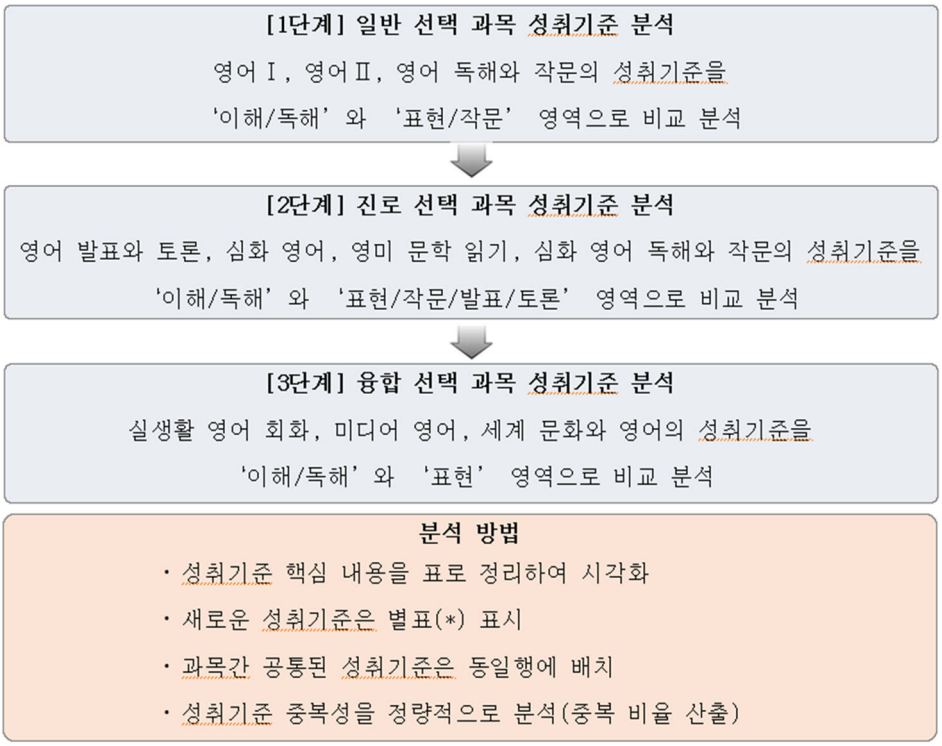
2. 성취기준 분석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성취기준 분석 절차와 분석 방법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일반 선택 과목(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의 성취기준을 '이해/독해'와 '표현/작문' 영역으로 구분하여 3과목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진로 선택 과목(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의 성취기준을 '이해/독해'와 '표현/작문/발표/토론'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앞서 분석한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과 비교하여 새롭게 제시된 성취기준을 식별하였다. 셋째, 융합 선택 과목(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의 성취기준을 '이해/독해' 영역과 '표현'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일반 선택 과목 및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과 비교하여 과목 간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성취기준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새롭게 제시된 성취기준의 경우 별표(*)로 표시하여 구분하였고, 과목 간 공통되는 성취기준은 동일한 행에 배치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목별 성취기준의 중복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과목에서 기존 과목들과 중복되는 성취기준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교육 전문가 2인이 독립적으로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각 전문가는 성취기준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범주화하였으며, 기존 성취기준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성취기준을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두 전문가의 분석 결과는 세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비교·검토되었으며,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 분류를 확정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고등학교 영어 교사 3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그림 2
성취기준 분석 절차 및 분석 방법



Ⅳ. 선택 과목 성취기준 비교 분석

1. 일반 선택 과목

1) '이해'와 '독해' 영역

일반 선택 과목의 '이해'와 '독해' 영역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영어I, 영어II 과목의 '이해' 성취기준은 각 8개,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의 '독해' 성취기준은 9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선택 과목 간 성취기준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제시된 성취기준 순서대로 '세부 정보 파악하기', '주제나 요지 파악하기', '심정이나 의도 추론하기/목적 파악하기', '논리적 관계 파악/추론하기', '맥락(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 '(말이나)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파악하기', '적절한 전략 활용/적용 및 매체 정보 이해/파악하기', '(의견과) 문화의 다양성 포용 및 공감하는 태도 갖기' 내용이 세 과목 모두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표 2
일반 선택 과목 '이해'와 '독해' 영역 성취기준 비교

일반 선택 과목(영역)			성취기준 내용
영어I (이해)	영어II (이해)	영어 독해와 작문 (독해)	
12영I-01-01	12영II-01-01	12영독01-01	세부 정보 파악하기
12영I-01-02	12영II-01-02	12영독01-02	주제나 요지 파악하기
12영I-01-03	12영II-01-03	12영독01-03	심정이나 의도 추론하기/목적 파악하기
12영I-01-04	12영II-01-04	12영독01-04	논리적 관계 파악/추론하기
12영I-01-05	12영II-01-05	12영독01-05	맥락(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
12영I-01-06	12영II-01-06	12영독01-06	(말이나)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파악하기
12영I-01-07	12영II-01-07	12영독01-07 12영독01-09	적절한 전략 활용/적용 및 매체 정보 이해/파악하기
12영I-01-08	12영II-01-08	12영독01-08	(의견과) 문화의 다양성 포용 및 공감하는 태도 갖기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목 간 언어적 표현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전략 활용과 매체 정보 이해에 관련된 성취기준의 경우, 영어I에서는 [12영I-01-07]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로 된 말이나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 영어II에서는 [12영II-01-07] "적절한 전략을 적용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의 말이나 글을 이해한다."로 제시되었는데,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이를 [12영독01-07]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정보를 파악한다."와 [12영독01-09] "적절한 읽기 전략을 적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한다."로 분리하여 두 가지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들은 내용상으로도 두드러진 차이를 찾기 어렵다.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점은 용어 선택으로, 전략 사용과 관련하여 영어I에서는 '활용'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영어II와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적절한 전략을 '적용'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영어I에서는 '말이나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 영어II에서는 '말이나 글을 이해한다',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정보를 파악한다'와 같이 서로 다른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인 내용이나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진술 방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선택 과목 간 '이해'와 '독해' 영역의 성취기준은 세부적인 표현이나 진술 방식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과목 간 변별성을 찾기 어렵다. 즉, 일반 선택 과목들은 사실상 하나의 연장된 과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해'와 '독해' 영역 관련 성취기준의 동질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 선택 과목이 공통적으로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일반 목적으로서의 영어(English for General Purposes) 과목으로 구성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22b).

2) ‘표현’과 ‘작문’ 영역

일반 선택 과목의 ‘표현’과 ‘작문’ 영역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영어I의 ‘표현’과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의 ‘작문’ 성취기준은 각각 8개, 영어II 과목의 ‘표현’ 성취기준은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성취기준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목 간 성취기준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과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된 성취기준 순서대로 ‘사실적 정보 설명/기술하기, 배려와 존중/포용적 태도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제시하기, (듣거나) 읽은 내용 (재구성하여) 요약하기, 서식을 목적(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기, (구조, 표현) 내용, 형식을 점검하고 쓰기/정보 윤리를 준수하여 고쳐 쓰기, 적절한 전략 활용/적용하여 정보 전달하기/쓰기 활동 참여하기’ 내용은 세 과목 성취기준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표 3
일반 선택 과목 ‘표현’과 ‘작문’ 영역 성취기준 비교

일반 선택 과목(영역)			성취기준 내용
영어I (표현)	영어II (표현)	영어 독해와 작문 (작문)	
12영I-02-01	12영II-02-01	12영독02-01	사실적 정보 설명/기술하기
12영I-02-02		12영독02-02	경험, 계획, 사건을 설명/소개하기
	12영II-02-02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 표현하기
12영I-02-03	12영II-02-03	12영독02-03	배려와 존중/포용적 태도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제시하기
12영I-02-04	12영II-02-04	12영독02-04	(듣거나) 읽은 내용 (재구성하여) 요약하기
12영I-02-05	12영II-02-06	12영독02-05	서식을 목적(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기
12영I-02-06	12영II-02-07	12영독02-06	(구조, 표현) 내용, 형식을 점검하고 쓰기/정보 윤리를 준수하여 고쳐 쓰기
12영I-02-07	12영II-02-08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창의적/효과적으로 전달하기
12영I-02-07	12영II-02-05	12영독02-08	적절한 전략 활용하여 정보를 창의적/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적절한 전략 적용하여 쓰기 활동 참여하기
12영I-02-08	12영II-02-09		협력적이고 능동적으로 과업 수행/의사소통하기

비록 세 과목에 포함된 성취기준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용어의 선택이나 구체적인 영역 언급 등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식을 목적(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기’와 관련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영어I에서는 [12영I-02-05] “서신, 신청서, 지원서 등의 서식을 목적에 맞게 작성한다.”, 영어II에서는 [12영II-02-06] “자기소개서, 이력서, 보고서 등의 서식을 목적에 맞게 작성한다.”,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12영독02-05]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메일 등의 서식을 목적과 형식에 맞게 작성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성취기준은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와 같이 서식 유형이 과목 간 중복되어 있고, 이력서와 지원서, 서신과 이메일 등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문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취기준들은 ‘서식을 목적(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기’라는 동일한 성취기준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세 과목의 성취기준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경험, 계획, 사건을 설명/소개하기’는 영어I과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 표현하기’는 영어II에서만,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창의적/효과적으로 전달하기’와 ‘협력적이고 능동적으로 과업 수행/의사소통하기’ 내용은 영어I과 영어II에서 제시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경험, 계획, 사건을 설명/소개하기’와 관련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영어I 성취기준 [12영I-02-02] “경험이나 계획 또는 일이나 사건을 말이나 글로 설명한다.”와 영어 독해와 작문 성취기준 [12영독02-02] “자신의 경험이나 계획, 사건을 글로 설명한다.”이다.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에서 ‘표현’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글로 설명한다’임을 감안하면 두 과목의 성취기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II 성취기준 [12영II-02-02]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와 비교하면, 영어I 과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경험, 계획, 사건을 (말이나) 글로 설명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어II 과목이 경험을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고, 자신의 감상과 느낌을 표현하는 심화된 수준까지 나아간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매체 및 전략 활용에 관하여, 영어I에서는 성취기준 [12영I-02-07] “다양한 매체와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정보를 창의적으로 전달한다.” 한 가지를 제시한 반면, 영어II에서는 [12영II-02-05]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대상을 설득한다.”와 [12영II-02-08]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로,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12영독02-07]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형식 및 목적에 맞게 정보를 전달한다.”와 “[12영독02-08] 적절한 쓰기 전략을 적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쓰기 활동에 참여한다.”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과목은 매체와 전략 활용의 목적을 영어I은 창의적으

로 정보 전달하기, 영어II는 논리적으로 대상 설득하기와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하기,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은 형식 및 목적에 맞게 정보 전달하기와 자기주도적으로 쓰기 활동 참여하기로 각각 기술하고 있다. 이렇듯 세 과목 모두 매체와 전략의 활용을 다루고 있으나,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이고 능동적으로 과업 수행/의사소통하기' 성취기준 내용은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I과 영어II에서 제시된다. 영어I에서는 [12영I-02-08] "협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말하기나 쓰기 과업을 수행한다."를, 영어II에서는 [12영II-02-09]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해 협력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한다."를 제시하였다. 영어I에서 말하기와 쓰기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반면, 영어II에서는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기능과 관련한 과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차이점들은 실질적으로 변별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경험, 계획, 사건을 설명/소개하기'와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 표현하기'의 경우, 영어I과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경험 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영어II에서는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감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경험 등을 설명할 때 감상이나 느낌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경험'이라는 핵심 주제는 동일하며, 단지 이를 다루는 활동의 수준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뚜렷한 변별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매체 및 전략 활용과 관련하여 각 과목에서는 창의적 정보 전달, 논리적 설득, 형식에 맞는 정보 전달 등 서로 다른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상호보완적 요소들이다. 예컨대,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논리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형식적 적절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매체 및 전략 활용의 성취 목적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과목 간의 본질적인 변별성을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셋째, '협력적이고 능동적으로 과업 수행/의사소통하기'에서 영어I은 말하기와 쓰기라는 구체적 기능을, 영어II는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둘 다 협력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이는 용어 사용의 범위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구현되는 활동의 성격은 동일하므로 동질한 성취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선택 과목 간 '표현'과 '작문' 영역의 성취기준은 세부적인 표현이나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실질적인 변별성을 찾기 어려울 만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이해'와 '독해'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선택 과목들이 사실상 하나의 연장된 과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취기준의 동질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2. 진로 선택 과목

1) ‘이해’와 ‘독해’ 영역

심화 영어의 ‘이해’ 성취기준은 8개,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의 ‘독해’ 성취기준은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영미 문학 읽기는 영역 구분 없이 8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이해’나 ‘독해’와 연관된 성취기준은 6개이다([12영문01-02], [12영문01-04], [12영문01-05], [12영문01-06], [12영문01-07], [12영문01-08]). 진로 선택 3과목의 성취기준 23개 가운데 중복된 내용의 성취기준을 통합하면, 17개 성취기준으로 구성된다(표 4 참조). 이는 일반 선택 3과목의 8가지 성취기준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양하게 구성된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변별성이 있는 성취기준은 더 줄어든다. 먼저 17가지 성취기준에서 ‘심정이나 의도/목적 추론/파악하기’, ‘논리적 관계 파악/추론하기’, ‘맥락(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 세 가지는 일반 선택 과목 성취기준 내용과 중복된다. 또한,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 내용과 유사하여 내용상 변별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2심영01-01]과 [12심독01-01]에 제시된 ‘(기초 학문 주제) 주요 내용 파악하기’는 일반 선택 과목 성취기준 내용 ‘주제나 요지 파악하기’와 유사하고, [12심독01-06] ‘글의 구조와 형식을 비교·분석하기’와 [12영문01-04] ‘작품의 구조 분석하기’는 일반 선택 과목 성취기준 내용 ‘(말이나)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파악하기’와 유사하여 완전히 새로운 성취기준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 내용과 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별성이 잘 드러나는 새로운 성취기준 내용만 살펴보면, [12심영01-03]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12심독01-07] ‘매체의 글의 내용 타당성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12영문01-05], [12심독01-05] ‘문학적 비유 표현과 의미 파악하기’, [12심영01-06] ‘의견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12영문01-06] ‘매체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의 내용을 분석, 비평하기’, [12영문01-07] ‘(문화 간 차이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기’, [12영문01-08]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심미적 태도 기르기’ 총 7가지로 제한된다.

진로 선택 과목별로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 내용과 중복되는 정도를 분석해보면, 심화 영어는 성취기준 8개 중 6개(75.0%), 영미 문학 읽기는 6개 중 2개(33.3%),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은 9개 중 7개(77.8%)가 중복된다. 심화 영어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과 변별되는 성취기준이 적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 기존 과목과 비슷한 유형과 방식의 수업과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른 영어 수업과 변별되는 선택 과목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4
진로 선택 과목 '이해'와 '독해' 영역 관련 성취기준 비교

진로 선택 과목(영역)			성취기준 내용
심화 영어 (이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독해)	
12심영01-01		12심독01-01	(기초 학문 주제) 주요 내용 파악하기
12심영01-02	12영문01-02	12심독01-02	심정이나 의도/목적 추론/파악하기
12심영01-04		12심독01-03	논리적 관계 파악/추론하기
12심영01-03*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12심영01-05		12심독01-04	맥락(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
	12영문01-04		작품의 구조 분석하기
		12심독01-06	글의 구조와 형식을 비교·분석하기
12심영01-08			적절한 전략 활용/적용 및 매체 정보 이해/파악하기
		12심독01-09	적절한 전략 적용하여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
12심영01-07			(의견과) 문화의 다양성 포용 및 공감하는 태도 갖기
		12심독01-08	문화 등에 관한 글을 읽고 포용적 태도 갖기
		12심독01-07*	매체의 글의 내용 타당성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12영문01-05*	12심독01-05*	문학적 비유 표현과 의미 파악하기*
12심영01-06*			의견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12영문01-06*		매체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의 내용을 분석, 비평하기*
	12영문01-07*		(문화 간 차이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기*
	12영문01-08*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심미적 태도 기르기*

Note. *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취기준

반면,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은 비교적 다양하고 변별성 있는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어 타 영어 과목과 구별되는 교수·학습 및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성취기준에 '문학 작품', '이야기나 희곡', '시' 등이 언급되어 있어 문학 텍스트를 통한 심미적 감상과 문화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화된 성취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영어 수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성취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12영문01-06])을 제외한 모든 성취기준에서 '문학 작품/이야기나 희곡/시를(을) 읽고'로 시작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이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학적 비유 표현과 의미 파악하기'와 같은 성취기준은 읽기 수업에 적합하고, '필자의 의도나 목적 파악하기', '작품의 구조 분석하기' 등의 성취기준은 독해 중심 수업으로 진행된 기존 영어 과목에서 흔히 다루어져 왔다. 이처럼 영미 문학 읽기 과목에 독해 중심 수업을 구현하기 적합한 성취기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과목의 평가 체제와 방식은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가치 탐구보다는 지문 분석과 내용 이해에 치중된 수업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윤구상, 2021; 한광택, 2023).

영미 문학 읽기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흥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그 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점에 대해 이해하며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 등의 수업을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영어 수업과의 변별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영미문학 수업 본래의 성격과 목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성취기준에 초점을 두고 수업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2영문01-08] "문학 작품을 읽고 표현이나 주제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심미적인 태도를 기른다."와 같이 문학 교육 본연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성취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성취기준을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광택(2023)은 학습자 중심 영문학 수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면서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의 성취기준 재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 현장에서 독해 중심이 아닌 성취기준에 기반한 역량 중심 수업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타 영어 과목과의 차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체적인 과목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문학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성취기준에 대한 초점화와 성취기준의 재구성을 통해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은 기존 영어 과목들과 차별화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진정한 선택 과목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 다양한 성취기준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구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심화 영어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과의 성취기준 중복도가 높아 실질적인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다. 영미 문학 읽기는 일반 선택 과목이나 다른 진로 선택 과목에 비해 성취기준의 중복도가 낮고, 문학적 특성을 반영한 변별된 성취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함에 있어 독해 중심 수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학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평가 도구 제공,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연수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표현’, ‘작문’, ‘발표’, ‘토론’ 영역

진로 선택 과목에서 ‘표현’, ‘작문’, ‘발표’, ‘토론’ 영역과 관련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영어 발표와 토론의 ‘발표’와 ‘토론’ 성취기준은 각 8개, 심화 영어의 ‘표현’ 성취기준은 8개,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의 ‘작문’ 성취기준은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 구분 없이 8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된 영미 문학 읽기 과목에서 ‘표현’ 영역과 관련한 성취기준은 6개이다([12영문01-01], [12영문01-03], [12영문01-04], [12영문01-05], [12영문01-06], [12영문01-08]). 진로 선택 4과목의 성취기준 36개 중 중복된 내용의 성취기준을 통합하면, 20개 성취기준으로 분류된다(표 5 참조). 일반 선택 과목의 ‘표현’, ‘작문’ 영역 성취기준과 비교해보면, 일반 선택 3과목 성취기준 10개에 비해(과목당 성취기준 수 = 3.3개) 진로 선택 과목은 4과목 성취기준 20개로 구성되어(과목당 성취기준 수 = 5.0개) 진로 선택 과목들이 더 다양한 성취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일반 및 진로 선택 과목 ‘표현’, ‘작문’, ‘발표’, ‘토론’ 영역 관련 성취기준 비교

진로 선택 과목				성취기준 내용
영어 발표와 토론 (발표, 토론)	심화 영어 (표현)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작문)	
12영발01-03	12심영02-01		12심독02-01	사실적 정보 설명/기술하기
12영발01-02				경험, 계획, 사건을 설명/소개하기
	12심영02-02	12영문01-03	12심독02-02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글을 읽고) 감상이나 느낌 표현하기
	12심영02-03		12심독02-03	의견 조정 및 토의하기
	12심영02-04	12영문01-01	12심독02-04	(듣거나) 읽은 내용 (재구성하여) 요약하기
	12심영02-07		12심독02-07	(구조, 표현,) 내용, 형식 점검하고 쓰기/정보 윤리 준수하여 고쳐 쓰기
12영발01-05 12영발02-05	12심영02-06		12심독02-06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창의적, 효과적, 목적 및 형식에 맞게, 정보 윤리를 준수하며) 전달/발표/토론하기, 매체의 정보를 재구성하여 발표하기
		12영문01-06*		매체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의 내용을 분석, 비평하기*
12영발01-07 12영발02-07				적절한 전략(기법) 활용하여 정보 전달하기/대상 설득하기/쓰기 활동 참여하기

12영발01-04 12영발02-03				자신의 관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12심영02-08		12심독02-08	전략을 적용하여 공감하며 소통하는 태도 갖기
		12영문01-05*		문학적 비유 표현과 의미 파악하고 창의적 형태로 표현하기*
12영발01-01* 12영발02-01*				정보 수집 및 토론/발표 개요 준비하기*
12영발02-02*				학술 자료, 통계, 사례 등 주장에 대한 근거 설명하기*
12영발01-06* 12영발02-06*				문화 간 의사소통 방식 이해, 적용하기*
12영발01-08* 12영발02-08*				발표/토론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비판적 성찰하기*
12영발02-04*				상대방 주장 논리 분석 및 토론하기*
	12심영02-05*		12심독02-05*	(문화 간 차이 등에 대해) 비교·대조/비교·분석하기*
		12영문01-04*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여 구성 요소 설명하기*
		12영문01-08*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심미적 태도 기르기*

Note. *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취기준

진로 선택 4과목 성취기준 20개 중,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에도 제시되었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제외하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10개의 새로운 성취기준이 확인된다. [12영문01-06] '매체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의 내용을 분석, 비평하기', [12영문01-05] '문학적 비유 표현과 의미 파악하고 창의적 형태로 표현하기' [12영발01-01], [12영발02-01] '정보 수집 및 발표/토론 개요 준비', [12영발02-02] '학술 자료, 통계, 사례 등 주장에 대한 근거 설명하기', [12영발01-06], [12영발02-06] '문화 간 의사소통 방식 이해, 적용하기', [12영발01-08], [12영발02-08] '발표/토론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비판적 성찰하기', [12영발02-04] '상대방 주장 논리 분석 및 토론하기', [12심영02-05], [12심독02-05] '(문화 간 차이 등에 대해) 비교·대조/비교·분석하기', [12영문01-04]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여 구성 요소 설명하기', [12영문01-08]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심미적 태도 기르기'가 이에 해당된다.

진로 선택 과목별로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 내용과 중복되는 정도를 분

석해보면, 영어 발표와 토론은 16개 중 6개(37.5%), 심화 영어는 8개 중 7개(87.5%), 영미 문학 읽기는 6개 중 2개(33.3%),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은 8개 중 7개(87.5%)가 중복된다. 이는 영어 발표와 토론과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이 상대적으로 변별성이 높은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선택 과목들과 차별화된 다양한 수업과 평가의 시행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반면 심화 영어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인 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에서 '심화'라는 용어를 첨가한 것에서 알 수 듯이,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 선택 과목과 대부분 중복되는 성취기준을 다루고 있어 학습자 입장에서 기존의 영어 수업과 비슷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등학교 영어 교과는 내신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교과로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 5지선다형 문항 중심의 지필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에 수행평가가 도입된 이후 전체 평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의 어려움과 교사의 업무 가중 등으로 인해 수행평가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천혁진, 2024). 특히, 듣기, 말하기, 보기, 제시하기 등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발표와 토론 과목의 경우, 기존의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체제로는 성취기준이 의도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 발표와 토론 과목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학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방식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별화된 성취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어 과목들과 유사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선택 과목 도입의 의의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 '작문', '발표', '토론' 영역과 관련하여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 더 다양하고 심화된 성취기준을 수업과 평가에 구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심화 영어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의 성취기준 중복도가 높아 교수·학습의 수준 심화 이외의 실질적인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영어 발표와 토론과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은 타 영어 과목 성취기준 내용과 중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목의 특성을 잘 반영한 차별화된 교수·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어 발표와 토론 과목의 경우, 과목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행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 방식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융합 선택 과목

1) '이해'와 '독해' 영역

융합 선택 과목은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 세 과목 모두 영역의 구분 없이 성취기준이 각각 9개, 10개, 10개 제

시되었다. 이 중 '이해'와 '독해' 영역과 관련한 성취기준은 실생활 영어 회화 2개([12실영01-01], [12실영01-02]), 미디어 영어 4개([12미영01-01], [12미영01-07], [12미영01-08], [12미영01-09]), 세계 문화와 영어 4개([12세영01-01], [12세영01-04], [12세영01-05], [12세영01-06])로 3과목 합하여 10개이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융합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은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성취기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실용 영어 성취기준 [12실영01-01] '주제나 요지 파악하기'와 [12실영01-02] '심정이나 의도/목적 추론/파악하기', 그리고 세계 문화와 영어 성취기준 [12세영01-01] '적절한 전략 활용/적용 및 매체 정보 이해/파악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7개는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 성취기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성취기준이다. 미디어 영어 과목의 성취기준 [12미영01-01] '검색 엔진 활용하여 필요 정보 찾기', [12미영01-07] '미디어 시청각 단서 이해 및 표현하기', [12미영01-08] '미디어에 제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12미영01-09] '미디어 정보의 창의적·비판적 처리를 위한 출처 확인 및 정보 보안 준수하기', 그리고 세계 문화와 영어 과목 성취기준 [12세영01-04] '(문화 간 차이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기', [12세영01-06] '다른 문화권 이해 및 자신의 문화 인식 및 관점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12세영01-05] '문화적 전제, 관점 또는 가치관 추론하기'가 이에 해당된다.

융합 선택 과목별로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과 중복되는 정도를 분석해보면, 실생활 영어 회화는 2개 중 2개(100.0%), 미디어 영어는 4개 중 0개(0.0%), 세계 문화와 영어는 4개 중 1개(25.0%)가 중복된다. 이는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와 영어는 타 영어 과목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변별성을 가진 과목인 반면, 실생활 영어 회화는 타 과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과목임을 암시한다. 적어도 '이해'와 관련한 성취기준 측면에서 볼 때, 실생활 영어 회화는 다른 선택 과목과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융합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와 영어 과목은 차별화된 성취기준을 통해 영어교육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혁신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문화와 영어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권 문화가 확장 · 개편된 형태로, 기존 교과의 교수 · 학습 방법론과 평가체계가 교육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문화 교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실행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어 교과와 세계 문화 간의 학문적 접점 및 교육 내용의 범주와 심도에 대한 명확한 준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교수자들은 교과 운영에 대한 실천적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평가체계가 3단계 절대평가에서 5단계 상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객관적 평가와 변별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자들은 평가의 용이성을 추구하여 읽기 중심의 지필평가와 이에 부합하는 강의식 수업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디어 영어의 경우, 교육

과정 문서에 명시된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향 이외의 구체적 실행 지침이나 참고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교수자들이 새로운 교과의 교육적 취지와 방향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과서 및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교수 · 학습 관행이 답습될 우려가 제기된다.

표 6
융합 선택 과목 '이해'와 '독해' 영역 관련 성취기준 비교

융합 선택 과목			성취기준 내용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12미영01-01*		검색 엔진 활용하여 필요 정보 찾기*
12실영01-01			주제나 요지 파악하기
12실영01-02			심정이나 의도/목적 추론/파악하기
		12세영01-01	적절한 전략 활용/적용 및 매체 정보 이해/파악하기
	12미영01-07*		미디어 시청각 단서 이해 및 표현하기*
	12미영01-09*		미디어 정보의 창의적·비판적 처리를 위한 출처 확인 및 정보 보안 준수하기*
		12세영01-06*	다른 문화권 이해 및 자신의 문화 인식 및 관점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12세영01-04*	(문화 간 차이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기
	12미영01-08*		미디어에 제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12세영01-05*	문화적 전제, 관점 또는 가치관 추론하기*

Note. * 융합 선택 과목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취기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융합 선택 과목은 7개의 혁신적 성취기준을 통해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과 차별화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와 영어 교과의 경우, 성취기준 측면에서 고도의 변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차별성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형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의 교과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구체적인 교수 · 학습 방법론의 확립, 평가 체계의 정교화, 교수 · 학습 자료의 체

계적 개발,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분석, 논의했던 내용을 종합하여, 표 7에서는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의 '이해'와 '독해' 영역 성취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이 표에서는 각 과목별 '이해'와 '독해' 영역 성취기준 수, 일반 선택 과목과의 중복 성취기준 수 및 중복 비율, 그리고 주요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어 과목 간 변별성의 확보 정도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선택 과목별 '이해'와 '독해' 영역 관련 성취기준 비교 분석 결과 요약

구분	과목	이해/독해 영역 관련 성취기준 수	일반 선택 과목과 중복 성취기준 수 (중복 비율)	주요 분석 결과
일반 선택 과목	영어I	8	-	일반 선택 세 과목 간 동질성이 매우 높음
	영어II	8	-	
	영어 독해와 작문	9	-	
진로 선택 과목	심화 영어	8	6(75.0%)	영미 문학 읽기는 상대적으로 새롭고, 심화 과목은 일반 선택과 중복률이 높아 차별성 미흡
	영미 문학 읽기	6	2(33.3%)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9	7(77.8%)	
융합 선택 과목	실생활 영어 회화	2	2(100.0%)	실생활 영어 회화는 일반 선택과목과 동질적이고,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와 영어는 새로운 성취기준 도입으로 변별성 높음
	미디어 영어	4	0(0.0%)	
	세계 문화와 영어	4	1(25.0%)	

2) '표현' 영역

융합 선택 3과목의 성취기준 29개 중, '표현' 영역과 관련한 성취기준은 실생활 영어 회화 7개([12실영01-03], [12실영01-04], [12실영01-05], [12실영01-06], [12실영01-07], [12실영01-08], [12실영01-09]), 미디어 영어 8개([12미영01-02], [12미영01-03], [12미영01-05], [12미영01-06], [12미영01-07], [12미영01-08], [12미영01-09], [12미영01-10]), 세계 문화와 영어 6개([12세영01-02], [12세영01-03], [12세영01-07], [12세영01-08], [12세영01-09], [12세영01-10])로 총 21개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 영역의 성취기준은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과 차별화된 새로운 성취기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융합 선택 과목별로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 내용과 중복되는 정도를 분석해보면, 실생활 영어 회화는 7개 중 2개(28.6%), 미디어 영어는 8개 중 0개(0.0%), 세계 문화와 영어는 6개 중 0개(0.0%)가 중복된다. '이해' 영역에서 다른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 내용과 중복률이 100.0%에 달했던 실생활 영어 회화 과목이 ‘표현’ 영역에서는 [12실영01-04] ‘배려와 존중/포용적 태도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제시하기’와 [12실영01-05] ‘실생활 경험, 사건, 시각 자료 묘사하기’ 2가지 성취기준을 제외하고는 5가지 새로운 내용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 영어 과목의 경우, 타 과목 성취기준과의 중복률이 모두 0.0%로 다른 선택 과목들과 매우 차별화된 과목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과목은 ‘이해’ 영역에서도 각각 0.0%, 25.0%의 낮은 중복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기존 영어 과목들과 차별화된 성취기준을 가진 과목으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디어 영어의 성취기준이 제시하는 차별성이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성취기준의 변별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는 있으나 이는 문화나 문학과 같은 본질적 내용 측면의 차별화가 아닌 도구적 차원의 차별화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12미영01-03] ‘미디어 정보 요약 또는 재구성하기’와 [12미영01-05]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견이나 정보 공유하기’는 기존 영어 교과에서도 수행되어 온 뉴스 시청 후 요약 활동이나 온라인 토론, 프레젠테이션 등과 실질적 변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대 영어교육에서 미디어 활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미디어 활용을 명시한 성취기준만으로는 교과의 본질적 차별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성취기준의 교육적 실현은 교과교육 전문가, 교과서 집필진, 현장 교수자의 해석과 실천적 판단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교과서와 교수 · 학습 자료의 부재 및 구체적 교수법 지침의 미비 상황에서 이러한 성취기준들이 여타 교과와 차별화된 교수 · 학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융합 선택 과목의 ‘표현’ 영역 성취기준은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특히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와 영어는 혁신적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생활 영어 회화 역시 ‘표현’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변별적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영어의 사례가 시사하듯 성취기준상의 차별성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및 학습자료 개발 단계에서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내용 체계 수립이 요구되며, 교수자들이 성취기준의 교육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 · 학습 지침과 자료의 제공, 그리고 체계적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표 8
융합 선택 과목 '표현' 영역 관련 성취기준 비교

융합 선택 과목			성취기준 내용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12실영01-05			실생활 경험, 사건, 시각 자료 묘사하기
12실영01-03*			자신, 타인, 사물 소개하기*
12실영01-04			배려와 존중/포용적 태도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제시하기
		12세영01-07*	문화적 산물 감상하고 표현하기*
	12미영01-07*		미디어 시청각 단서 이해 및 표현하기*
	12미영01-05*		미디어 활용하여 의견이나 정보 공유하기*
		12세영01-03*	타 문화 및 언어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 정보 수용 및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12미영01-03*		미디어 정보 요약 또는 재구성하기*
		12세영01-09*	수집한 문화 정보 요약 또는 재구성하기*
		12세영01-10*	정보 윤리 준수하여 문화 콘텐츠 제작 및 공유하기*
	12미영01-06*		미디어 정보 융합 및 도구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하기*
	12미영01-08*		미디어에 제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12실영01-09*		12세영01-08*	전략을 적용하여 대화 참여하기*, 적절한 전략과 태도를 갖추어 의사소통 참여하기*
	12미영01-02*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미디어 활용하여 협업하기*
	12미영01-09*		미디어 정보의 창의적·비판적 처리를 위한 출처 확인 및 정보 보안 준수하기*
		12세영01-02*	문화 현상 분석 및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하기*
	12미영01-10*		오류 수정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하기*
12실영01-06*			실생활에 필요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 설명하기*
12실영01-07*			실생활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대화 이어가기*
12실영01-08*			실생활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반응하기*

Note. * 융합 선택 과목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취기준

표 9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의 ‘표현’ 영역 관련 성취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표는 각 과목별 ‘표현’ 영역 관련 성취기준 수와 일반 선택 과목과의 중복 양상을 성취기준 수 및 중복 비율 측면에서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주요 분석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과목 간 변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9
선택 과목별 ‘표현’영역 관련 성취기준 비교 분석 결과 요약

구분	과목	표현 영역 관련 성취기준 수	일반 선택 과목과 중복 성취기준 수 (중복 비율)	주요 분석 결과
일반 선택 과목	영어I	8	-	일반 선택 세 과목 간 동질성이 매우 높음
	영어II	9	-	
	영어 독해와 작문	8	-	
진로 선택 과목	영어 발표와 토론	16	6(37.5%)	영어 발표와 토론은 발표와 토론의 특성이 뚜렷한 성취기준이 포함되었고, 영미 문학 읽기도 문학적 내용 및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새로운 성취기준 비율이 높아 변별성이 높음 심화 과목은 일반 선택과 중복률이 높아 차별성 미흡
	심화 영어	8	7(87.5%)	
	영미 문학 읽기	6	2(33.3%)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	7(87.5%)	
융합 선택 과목	실생활 영어 회화	7	2(28.6%)	실생활 영어 회화는 이해 영역과 달리 표현 영역에서는 새로운 성취기준이 다수 도입되어 부분적 차별화 가능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와 영어는 새로운 성취기준 도입으로 변별성 높음
	미디어 영어	8	0(0.0%)	
	세계 문화와 영어	6	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선택 과목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행 선택과목제가 실질적인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과목 간 차별성과 중복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택 과목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선택 과목 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의 성취기준은 '이해' 및 '표현' 영역 모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며 과목 간 명확한 차별성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성취기준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용어 선택이나 표현 방식의 차이만 존재하여 과목별 학습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선택 과목들은 본질적으로 학문 영역 내의 영어 능력을 기르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어 성취기준의 동질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로 선택 과목은 과목별로 일반 선택 과목과의 차별화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심화 영어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은 일반 선택 과목과의 중복률이 75.0%를 상회하여 '심화'라는 수준 차이 외에는 실질적인 차별화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영미 문학 읽기와 영어 발표와 토론은 타 영어 과목과 차별화된 성취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차별화된 성취기준이 독해 중심 수업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융합 선택 과목의 경우,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과는 보다 차별화된 새로운 성취기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와 영어는 '이해'와 '표현' 영역 모두에서 기존 과목들과의 성취기준 중복률이 매우 낮아 높은 변별성을 나타냈다. 실생활 영어 회화는 '이해' 영역에서 기존 과목들과의 중복률이 100.0%로 나타나 융합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소 모호했으나, '표현' 영역에서는 비교적 차별화된 성취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 선택 과목은 일정 부분 변별되고 차별화된 성취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선택 과목군이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유사한 성취기준으로 구성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는 과목 간 동질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은 일반 선택 과목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 과목보다 선택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 또한 저해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택 과목별로 특정 성취기준에서 사용 가능한 학습 활동과 평가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교수·학습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진로 선택 과목의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심화 영어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은 일반 선택 과목과 차별화된 성취기준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영미 문학 읽기는 문학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평가 도구 제공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영어 발표와 토론은 과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 방식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 방식의 전환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표 · 토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루브릭(rubric) 개발을 통해 제시된 성취기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융합 선택 과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 문화와 영어는 영어 과목과 문화 교육의 접점을 명확히 하고 다룰 문화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업 설계 시 세계 문화가 영어 학습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 어떤 문화를 어느 정도 비율로 다룰 것인지, 그리고 평가 설계 시 문화 및 태도와 관련한 성취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교사용 지침서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과목의 성격을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영어는 단순한 도구적 측면의 차별화를 넘어 과목의 본질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영어과의 독창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과 정보 활용 능력 및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에 영어 과목의 특색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미디어 영어 과목만의 고유한 교육적 정체성과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성취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과목 간 중복성과 차별성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성취기준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등에서 나타나는 선택 과목 간 변별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택 과목 성취기준의 실행 가능성과 적절성을 다수의 교과 교육 전문가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성 요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학교 현장의 선택 과목 운영 사례와 교사 및 학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미래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 특히 영어과 선택 과목들이 실질적인 변별성 없이 운영될 경우 단순히 과목 선택의 제한이라는 표면적 문제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다양화 및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영어과 교육과정과 영어교육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적 방향을 모색하려는 교육적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선택과목제의 본질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목 간 실질적 차별성 확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이 향후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과 개정의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진정한 의미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

교육부. (2021. 2. 16.).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359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교육부. (2022a).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4].

교육부. (2022b).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4].

교육부. (2022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 (2022d. 12. 22.). *2022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89&s=moe&m=020402&opType=N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2019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안내서*.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연구자료 ORM 2023-25.

김동욱.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실제 및 학생 선택 경향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37*(2), 131-157.

김미진. (2019).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반영된 교과역량 특성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23*(2), 108-117. https://doi.org/10.24231/rici.2019.23.2.108

김성천. (2021).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 분석. *교육비평*, *48*, 32-63. https://doi.org/10.23119/er.2021..48.32

김연. (2020). 학생선택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실천 사례 분석과 고교학점제에의 시사점 – 충남삼성고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63-91.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1.63

김재춘, 박소영. (2004).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69-83.

김홍겸, 오현정. (2019).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의 개선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111-139.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2.111

서봉언. (2020). 고교학점제 도입과 학교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30*(2), 55-79. https://doi.org/10.32465/ksocio.2020.30.3.003

소경희.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선택권'의 의미와 구현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0*(4), 87-106.

유동훈, 김은수, 모영민. (2020).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학교 사례 연구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7*(4), 419-449. https://doi.org/10.52183/KSPE.2020.27.4.419

윤구상. (2021). 문학으로서의 영미문학읽기. *영미문학교육, 25*(2), 113-142. https://doi.org/10.19068/jtel.2021.25.2.05

이병천. (2018). 영어교과 평가의 성취기준 비교 분석. *중등영어교육, 11*(4), 127-146. https://doi.org/10.20487/kasee.11.4.201811.127

이상은, 백선희.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교육과정연구, 37*(3), 79-105.

이영아. (202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쟁점 및 과제. *현대영어교육, 23*(1), 28-41. https://doi.org/10.18095/meeso.2022.23.1.28

이영아. (2023).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분석, *외국어교육연구, 37*(1), 117-144. https://doi.org/10.16933/sfle.2023.37.1.117

임종헌, 황재운, 안영은. (2023).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서울 일반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5), 25-52. https://doi.org/10.24159/joec.2023.29.5.25

전은정, 최윤정, 김지혜. (2023).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 2018~2022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4*(1), 165-192. https://doi.org/10.15854/jes.2023.03.54.1.165

주형미, 김성혜, 박태준, 배주경, 강혜정, 맹은경, 윤상돈, 이영아, 박민선, 정윤미. (2021).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영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CRC 202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천혁진. (2024).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과와 한계: 네 가지 언어 기능에 대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인식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66*(3), 299-329. https://doi.org/10.18853/jjell.2024.66.3.014

최원경. (202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전략'의 의미와 적용시 고려사항: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영어평가, 17*(2), 143-161. https://doi.org/10.37244/ela.2022.17.2.143

최원경. (2023).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역량과 영역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영어교과교육*, *22*(4), 277-294. http://doi.org/10.18649/jkees.2023.22.4.277

한광택. (2023). 영미 문학교육의 새 모델: 문학적 내러티브 중심 수업의 성취기준과 평가를 중심으로. *영미문학교육, 27*(3), 101-130. https://doi.org/10.19068/jtel.2023.27/3.04

홍후조. (2018). 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99-724.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699

Lee, B. C. (2019). Comparative study on competency-based English curriculu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3), 81-103. https://doi.org/10.35828/etak.2019.25.3.81

Lee, B. C. (2020). Restructuring achievement standards i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6*(1), 19-38. https://doi.org/10.35838/etak.2020.26.1.19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천혁진(강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hgjja2615@gmail.com

Received: January 31, 2025
Reviewed: March 2, 2025
Revised version received: March 25, 2025